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22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금융교육의 필요성

최근 금융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먼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입니다.

현재의 경제·금융시장은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복합적인 리스크가 중첩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무설계, 신용관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확산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년 전보다 8년 가까이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젊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점포 방문 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간단한 지문 등록·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금융 편의성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향유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금융사기 피해의 증가입니다.

최근 들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식·가상자산 리딩방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 3. 금융교육 추진방향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면 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수준을 파악한 후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통해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23년 소비자 대상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확충하고,

전문강사,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예시)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증권시장교실 개최  
[중고등학생] 지방교육청과 협업하여 금융진로 체험교육 실시  
[중장년층] 지방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금융특강 실시  
[고령층] 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은퇴설계 및 노후자산관리 교육 실시

#### 4. 마무리 말씀

美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펜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 문맹이 많은 현실을 꼽았습니다.

그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비대면 교육방식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